D6 H.W  우버 vs 리프트             서윤주

우버와 리프트는 미래의 교통수단,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심지어 직장에 가는 수단의 형태의 선두이다. 하지만 공개하는 봉은 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포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리프트는 주로 미국에서 자가용 소유권을 없애기 위한 대체교통수단의 선택으로 시작하였다. 우버도 역시 그렇지만 우버는 전세계에 사람들과 제품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으며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있다.

우버의 다양한 야심을 설명하기 위해 회사는 방대한 양의 서비스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책을 팔기 시작한 아마존과 반복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버의 투자가 가끔 교통수단에서 멀리 방향을 틀었다. 회사는 우버위크 라고 하는 직원서비스를 시험 삼아 해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최근에 우버는 식사배달서비스의 부분으로서 음식점에 주방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트래비스 칼라닉의 지시 하에 우버는 몇 개의 대륙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었으며, 자율주행차, 식사배달과 화물배송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버는 또한 편의점 제품과 독감예방주사 배송을 시험 삼아 해 보았다. 대중교통제품라인에서 우버는 보트, 헬리콥터 그리고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면서 리프트보다 대중교통수단의 선택의 범위가 폭넓어졌으며 단언컨대 눈에 띄게 되었다.